

#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5월 26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제주농업기술센터 역량강화 교육-9면	제주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생활개선제주시연합회 동부 나눔행사-9면	제주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생활개선제주시 동부지부, 고추장 나눔 행사-12면	제주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제주동부농업기술센터 현장연찬회-9면	동부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기고] 참깨 농사, 이제 ‘허리 펴고’ 콤바인으로 수확-14면(박남수)	동부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내일 오전까지 강한 비...산지 ‘물폭탄’ -7면	-	제민일보
○	감귤로 기능성 화장품 개발 피부장벽 개선 식약처 인증-6면	-	삼다일보

(제민일보: 2026년 5월 26일)

○ 제주농업기술센터 역량강화 교육-9면



## 제주농업기술센터 역량강화 교육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허영길)는 22일 여성농업인 3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비료 가격 상승과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적정 비료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실천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5.26.

제민일보 9

(제민일보: 2026년 5월 26일)

○ 생활개선제주시연합회 동부 나눔행사-9면



## 생활개선제주시연합회 동부 나눔행사

(새)한국생활개선제주시연합회 동부지부 (회장 이미경)는 21일 회원 15명이 직접 만든 ‘마늘조청고추장’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 만든 고추장은 ‘한라노인 영양원’과 ‘한라재가복지센터’에 전달하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5. 26.  
제민일보 9

(제주매일: 2026년 5월 26일)

○ 생활개선제주시 동부지부, 고추장 나눔행사-12면



## 생활개선제주시 동부지부, 고추장 나눔행사

(사)한국생활개선제주시연합회 동부지부(회장 이  
미경)는 21일 회원 15명이 직접 만든 '마늘조청고추  
장'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5. 26.  
제주매일 12

(제민일보: 2026년 5월 26일)

○ 제주동부농업기술센터 현장연찬회-9면



## 제주동부농업기술센터 현장연찬회

제주도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미)는 21일 성산읍 일원에서 동부감황키위연구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부감황키위연구회 현장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에서는 인력 및 기계를 이용한 인공수분 실증시험 결과를 비교하고 생육 초기 관리 방법을 공유했다.

5. 26.  
제민일보 9

(제민일보: 2026년 5월 26일)

○ [기고] 참깨 농사, 이제 ‘허리 펴고’ 콤바인으로 수확-14면

독자기고



박남수

최근 농촌 현장은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참깨 재배는 수확 과정에서 예취, 결속, 건조, 탈곡 등 대부분의 작업이 수작업에 의존해 노동

참깨 농사, 이제 ‘허리 펴고’ 콤바인으로 수확

강도가 높은 대표적인 작목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농가들이 재배면적을 늘리기 어려워하며 제주지역 참깨 재배면적은 2019년 629ha에서 2024년 231ha로 약 63% 감소했다.

이런 재배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 동부지역에서는 올해 ‘기계수확용 참깨(하니올) 현장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력 절감과 기계화 확대를 통해 참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다.

이번에 도입되는 참깨 신품종 ‘하

니올’은 기계수확에 적합하도록 육성된 품종이다. 기존 참깨 재배는 10a 기준 수확 과정에서 약 32.6시간의 노동력이 필요했으나 콤바인을 활용한 기계수확 방식 적용시 작업 시간을 약 0.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어 노동력 98% 절감이 가능하다.

이번 실증사업은 제주 동부지역 발작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약 40ha 규모로 추진된다. 실제 농가 포장에서의 재배 적응성, 기계수확 효율성, 현장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

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신품종 ‘하니올’ 종자와 건조제를 지원하고 참여 농가는 생육 관리와 평가회에 참여해 재배 기술 확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업의 경쟁력은 결국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술 혁신에서 시작된다.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계화 기술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돼 뜨거운 여름 피약별 아래 참깨를 베느라 굶었던 농민들의 허리가 활짝 펴지기를 기대해 본다. 5. 26.

<동부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팀장 박남수>

(제민일보: 2026년 5월 26일)

○ 내일 오전까지 강한 비...산지 '물폭탄' -7면

# 내일 오전까지 강한 비...산지 '물폭탄'

도 전역 50~150mm, 산지 300mm  
강풍·높은 물결에 해상 비상  
하천·오름·올레길 출입 자제

이른 무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26일부터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늘(26일) 서해남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번 비는 내일(27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북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50~150mm다. 특히 중산간은 200mm 이상, 산지는 최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북부와 추자도는 30~80mm의 강수량이 예보됐다.

특히 26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산지와 중산간에는 시간당 50~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고 남부와 동부, 서부 지역은 시간당 30~50mm, 북부와 추자도는 시간당 20~30mm 수준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

5.26. 비는 따뜻하고 습한 남서기  
제민일보 7월 7일  
유기유입되는 가운데 저기압과 기

압골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강수대가 강하게 발달하는 형태다. 여기에 한라산 지형 효과까지 겹치면서 국지적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번 강수가 역대 5월 일강수량 기록에 근접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지점별 5월 일강수량 극값은 제주 167.0mm(2003년 5월 30일), 서귀포 287.8mm(2023년 5월 4일), 성산 291.8mm(1992년 5월 6일), 고산 168.1mm(1991년 5월 19일) 등이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제주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 산지는 초속 25m 수준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 상황도 좋지 않다. 제주도 해상에는 바람이 초속 8~16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대 3.5m까지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해상과 남해서부서쪽 먼 바다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26일 제주 아침 최저기온은 20~21도, 낮 최고기온은 23~27도로 예보됐다. 비는 27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28일부터 차차 그칠 전망이다.

조병관 기자

(삼다일보: 2026년 5월 26일)

○ 감귤로 기능성 화장품 개발 피부장벽 개선 식약처 인증-6면

## 감귤로 기능성 화장품 개발 피부장벽 개선 식약처 인증

농촌진흥청은 ‘윈터프린스’와 ‘온주밀감’으로 피부장벽을 개선하는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증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진이 윈터프린스·온주밀감 혼합추출물을 인공 피부에 실험한 결과 대조군보다 피부장벽 형성 핵심 단백질인 필라그린과 콜라겐의 유전자 발현량이 약 2배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피부장벽 기능 저하 증상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4주간 실험 결과 경피수분손실량이 15.4% 줄었고 피부 수분 함유도는 61.7% 증가했다. 가려움증도 28.5% 개선됐다.

연구는 농촌진흥청, 전남바이오진흥원, 산업체((주)팜스빌) 공동으로 추진돼 특허등록과 기술이전을 마무리했다. 산업체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5. 26.  
삼다일보 **6**면 **6**임현종 기자 tazan@samdailbo.com